

생존경쟁과 사랑

박희주 (기학연 편집위원, 명지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1서 4:7)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는 이기적 분자들을 맹목적으로 보전하도록 프로그램 된 일종의 생존기계이다.

...

인간도 비비(원숭이의 일종)도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되어 왔다. 자연선택의 과정을 보면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되어 온 것은 무엇이든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예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12)고 말씀하신다. 이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사랑이 없나니"(13절)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극치를 설명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그분을 위해 또 친구를 위해 기꺼이 죽는 것이 사랑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이다.

성경은 신앙의 본질, 인간 삶의 본질이 사랑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화론적 세계상에서는 이기적 생존경쟁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세계를 설명하는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한다. 이타적 사랑과 이기적 생존경쟁 과연 어느 쪽이 인간본성을 설명하는 본질일까?

우선 성경적 인간관은 둘 다를 이야기한다. 사랑은 하나님으로서 부터 나고 이기심은 인간의 죄 된 본성으로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이기심 둘 다 자리 잡고 있으며 바울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롬 7:2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5-6)고 말하며 우리 마음의 이중적 구조를 말한다.

이와 달리 진화론적 세계상에서는 이기적 생존경쟁이 인간의 본성을 형성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학문적 설명은 오랫동안 신학, 철학, 사회과학의 영역에 속한 문제였으나 1970년대 중반 사회생물학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의 연장선상에 있다. 동물의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설명가능하다면 포유류인 인간의 행동 역시 생물학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할 것이다. 70년대 중반 하버드대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사회생물학』에서 시도한 바가 바로 이것이다. 윌슨의 사회생물학은 오늘날 진화심리학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인간의 심리, 행동, 사회성이 형성된 과정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진화론의 핵심 설명 메커니즘은 이기적 생존경쟁이다. 이는 영국의 대표적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개념에 함축적으로 녹아있다. 진화론은 이기심과 생존경쟁으로 생명현상과 행동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의하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행동은 이기적 생존경쟁의 발로이며 따라서 인간의 본성 역시 이기적이라고 본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개체와 싸우고 먹이를 빼앗고 심지어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는 현상은 인간세계를 비롯해 동물세계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이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랑이다. 이타적 사랑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까? 이기적 생존경쟁뿐만 아니라 이타적 사랑과 협동 역시 동물과 인간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개미, 벌, 새 등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동족과 집단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킨스의 표현을 빌면 “이기적 생존기계”인 개체가 어떻게 자기모순적인 희생을 감수할까?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인 윌슨은 이타적 행동과 협동이야말로 사회생물학이 설명해야하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대 진화론은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다. 첫째는 개체차원에서 이타적 희생으로 보이는 행동이 기실 유전자 차원에서는 유전자의 생존을 극대화시키는 이기적 행동이란 것이다. 이 관점에는 생존경쟁의 주체는 통념과 달리 개체가 아닌 유전자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배우자와의 결합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유전자는 암수 반반씩 절반만큼만 후손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형제나 친족도 나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후손이 퍼져나가는 것을 도우면 이와 유사한 나의 유전자도 퍼져나가게 되는 셈이다. 나의 후손을 직접 퍼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 친족의 생존을 도와 이들의 후손을 퍼뜨리는 것 역시 나의 유전자의 생존확률을 간접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다. 친족을 돕는 것 나아가 친족의 생존을 위해 나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겉으로는 희생으로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친족을 통해 나의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이기적 계산의 결과라는 것이 동물의 이타적 행동에 대한 현대진화론의 첫 번째 설명이다.

둘째는 개체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이기적 배신이 유리하나 장기적으로는 협동을 하는 편이 피자의 생존에 더 유리할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기적 생존게임에 아이러니하게도 이타적 협동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체계를 뒷받침하는 확률론적 이론도 개발되었다. 게임이론으로 잘 알려진 이 이론은 1940년대 응용수학, 경제학에서 개발되었으며 1970년대 초 동물의 행동학을 설명하기 위해 진화론에 도입되었다.

이타성과 협동에 대한 위 두 가지 설명방식은 첫째는 이타성은 이기성으로 환원가능하며 둘째 이타적 협동 역시 이기적 생존게임에서 생존확률을 높이기 위한 부차적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타성은 이기성의 다른 모습이거나 이기성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타성, 사랑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한다.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본질적 속성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사랑은 다른 무엇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며 다른 모든 것이 변하고 쇠하여도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 하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 하며 나아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다. (고전 13:8,13)

오늘날 생물학의 설명영역은 동물의 행동을 넘어 인간의 본성에 까지 이른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 동물이다. 관찰가능한 세상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현대생명과학이 생명의 본질로 이기심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사랑조차 이기심으로 환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에만 둘 때 우리는 이 세상 창조주의 본질인 사랑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최근 쏟아져 나오는 진화론적 해석은 출발부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제한된 테두리 내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사랑은 이기성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기적 생존경쟁은 이 땅에서의 생존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하늘의 생명은 하늘에서 오는 사랑으로서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1서 4:16)